

送舊迎新

다 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정해년 새해를 맞았다. 2007년 새해에는 독자들 모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해 본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느라 분주한 한해를 보냈고 성과 또한 그 어느 해보다 만만찮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용역사업 수주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말 까지 계속될 이 사업은 사업비만 해도 19억 6천만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런 국가적인 연구 조사용역사업을 우리 협회가 수주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어촌·어항의 장래를 가늠할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초 조사를 통해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미래의 우리 어촌·어항 새판짜기와 크게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업이 우리 협회에 맡겨진 것은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크게 향상됐음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할 어촌종합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추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함께 연계된 사업으로 우리 어촌·어항의 미래를 우리 협회가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정부위탁사업 가운데 하나인 어항시설물 안전점검과 어항유지 준설업무의 완벽한 수행도 올해의 성과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손꼽을 만하다.

그러나 지난해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은 어촌·어항의 관광진흥을 위해 우리 협회가 쏟은 노력이다.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어촌·어항·바다를 체험토록 하여 어촌을 다시 찾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벌인 행사엔 도시인 640명, 총인원 1,502명이 참가하는 커

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연이어 계속해 달라는 참가 소감문이 가득 담지된 것은 한편으로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어촌관광을 주도해 나갈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요개발사업 역시 어촌·어항·관광과 맞물려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맛따라 찾아가는 아름다운 어촌 100선' 책자 2만부를 발간 배포하고 '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 캠페인을 펼쳐 수산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소비 촉진을 도모한 것 등으로 우리협회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하나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협회의 당초 예산은 122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결산을 앞둔 지금 예산은 이보다 36억 7천만원이 늘어난 약 158억 7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 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더욱 분발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협회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어촌·어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어넣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먼저 어촌·어항·어장의 연계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에 전념하여야겠고 다음은 어항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어항 기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항 및 연안 수역의 환경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 또 어촌·어항의 관광진흥 및 문화창달 사업도 본격적으로 펼치고 이러한 사업들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립기반 확립도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업인·어항인이 활기를 되찾고 어촌·어항이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2007년 열심히 해 나가자.

